



고대안산병원뉴스

KOREA UNIVERSITY ANSAN HOSPITAL NEWS

no.50

2015년 01 / 02월

발행인 | 차상훈 · 발행처 |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3(고잔동) · 전화 | 1577-7516 · Fax | 031)412-5659 · 홈페이지 | http://ansan.kumc.or.kr · 발행일: 2월 28일 (격월간)

보건복지부 인증 의료기관, 고대 안산병원!

보건복지부 주관 2주기 의료기관 인증 획득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위상 이어나갈 것



고려대 안산병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 획득

"환자 안전 · 의료의 질
대한민국 TOP"

인증기간 2015.02~2019.02




고려대 안산병원(원장 차상훈)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인증 의료 기관으로 2회 연속 인정받아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지난 2011년부터 4년간 보건복지부 인증 의료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해온 고대 안산병원은 작년 12월 9일부터 4일간 진행된 '2014 2주기 의료기관 인증조사'를 성공적으로 마쳐 인증기간을 2019년 2월까지 이어가게 됐다.

조사기간 동안 6명의 조사위원들은 병원 곳곳을 돌며 규정 및 문서검토, 개별환자 추적조사, 감염관리시스템 추적조사, 지속적 질 향상시스템 추적조사, 시설 및 환경안전시스템 추적조사, 의약품관리시스템 추적조사, 인적자원관리시스템 추적조사, 경영진 서류검토 및 인터뷰 등을 통해 다각적인 평가를 진행했다.

차상훈 원장은 "의료기관 인증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불철주야 성심을 다한 교직원들의 노고에 가슴 깊이 감사드린다. 교직원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다시 한 번 보건복지부 인증 의료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며

교직원들의 노력을 치하했다.

또한, "조사는 끝났지만, 앞으로도 환자 안전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 경기 서남부 지역의 거점병원의 위상에 걸맞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며 당부했다.

김운영 적정진료관리위원장은 "의료기관인증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는 환자 안전 및 의료의 질 향상인데, 이를 위해 교직원 여러분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2주기 인증 의료기관으로서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여러분의 지속적인 열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인증제는 「의료법」 제58조제1항 및 제 58조제3에 따라 의료서비스 수준 및 의료기관 운영실태를 평가해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이 높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라는 사실을 정부가 공인하는 제도이다.

Contents

2p

진료협력센터

베트남 현지 환자 초청 의료서비스 제공



3p

세계속의 안산병원

국제수준의 의료진(5)



3p

도약! 연구중심병원

2015 융복합 산학연병 워크숍 개최



4p

언론에 소개된 안산병원

불안정한 수면, '노화 시계' 앞당겨



5p

센터소식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위탁



8p

장비소식

실시간 림프관조영장비 개발



How to contact 고대안산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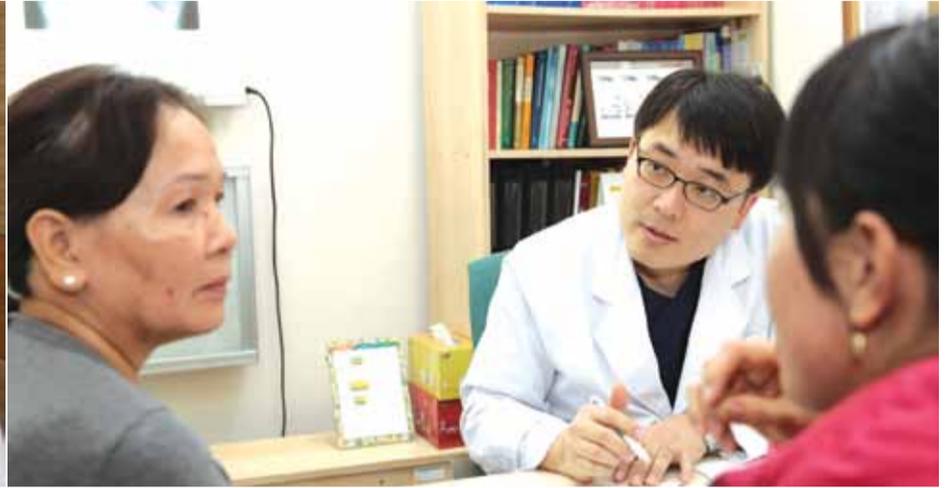
- 전 화 예 약 - 진료예약센터 : 1577-7516
예약시간 : 평일 08:00 ~ 18:00, 토요일 08:00 ~ 13:00
- 인터넷예약 - 홈페이지(ansan.kumc.or.kr)에서 회원가입 후 예약
※예약일정이 확정되면 진료일 전날 고객님의 핸드폰으로 SMS문자가 발송됩니다.

□ 진료협력센터: 031)412-5103 □ 응급의료센터: 031)412-5381 □ 종합건강진단센터: 031)412-5865



고대병원 모바일웹 접속

고대 안산병원, 베트남 현지 환자 초청 의료서비스 제공 경기도 글로벌 나눔의료 사업 일환 외국인 국제 진료 실시!



고려대 안산병원(원장 차상훈)이 1월 18일부터 5일간 ‘경기도 글로벌 나눔의료 사업’의 일환으로 베트남 현지 환자를 초청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베트남 환자는 누엔티신(55세, 여)씨로, 평소 베트남에서 생업과 가사를 돌보며 받은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되어 두통과 가슴통증을 호소했다. 베트남 현지 병원과의 원격 진료 결과 정밀한 검사가 필요해 고대 안산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됐고, 입원기간 동안 환자의 심장질환 위험도 파악을 위해 운동부하심전도, 뇌 자기공명영상 검사 등을 비롯한 몸 전체에 정밀검사가 이루어졌다.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흉부심장혈관외과를 비롯한 4개 과가 협진을 펼친 결과 환자는 자율 신경계의 조화가 잘 맞지 않아서 생기는 미주신경성 실신판정을 받았고, 우선 수술보다는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고려대 안산병원 진료협력센터 부센터장 홍부심장

혈관외과 조원민 교수는 “기온이 높은 베트남에서 무리해서 일하다보니 탈수증상이 쉽게 발생하고 이로 인해 두통과 가슴통증이 수반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 글로벌 나눔의료 사업’은 빈곤층 외국인 환자를 초청해 경기도와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 일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경기도는 나눔 정신을 실천하는 것은 물론, 우수한 의료기술도 알릴 수 있어 의료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고대 안산병원은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국제의료관광 사업 및 협력병원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누엔티신씨의 사연은 지난 2월 8일 KBS1 시사교양 프로그램인 러브 인 아시아에 소개됐다. 

늘어나는 성인 여드름, 과연 그 해법은?



여드름이 사춘기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던 시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대학생이나 회사원들도 여드름으로 피부과를 찾는 경우가 늘고 있다. 여드름의 발생 연령대는 대다수가 12~25세이지만 30~40대에서도 많이 발생하며, 18세 이상의 여드름 환자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여드름의 종류에는 구진, 농포라고 해서 빨갛게 되거나 붉은 경우가 가장 많지만, 굵지 않은 화이트헤드형태의 면포형은 청소년에 비해 성인들에게 더 많이 발생한다.

▲ 만성 스트레스, 화장품, 잦은 세안, 당도 높은 음식 등이 성인 여드름의 주범

성인 여드름의 발생 원인으로 유전적 요인, 호르몬, 만성 스트레스, 화장품, 잦은 세안 등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어느 것도 정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부신 안드로젠 분비를 증가시켜 피지선 과증식과 면포의 생성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드름 발생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화장품 또한 성인 여드름의 발생에 관여할 수 있는데, 화장품에 의해 유발되는 여드름을 화장품 여드름이라고 한다. 여드름이 있는 사람들은 얼굴이 청결하지 못해서 여드름이 생긴다는 인식 때문에 세안을 강박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심한 마찰과 함께 면포를 형성하여 오히려 ‘세제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다. 최근 당도가 높은 음식과 유제품이 여드름과 관계가 있다는 논문들이 나오고 있어 여드름 발생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 다양한 치료법 존재...생활 속 습관 변화로 여드름 억제 가능

여드름은 과다한 피지 분비, 이상 각화증, 프로피오니박테리움 에크니라는 여드름균의 작용, 염증 반응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발생하게 되는데, 치료는 이 각 과정을 막는데 중점을 둔다. 따라서 위 네 단계에 모두 관여하는 이소트레티노인이라는 피지 억제제를 여드름 치료를 위해서 복용하기도 한다. 다만 이 약은 임신부가 노출되면 안 되는 약이고 끊고 나서도 일정기간 몸 안에 잔류하는 기간이 있어 결혼과 임신 계획이 있는 사람은 복용해선 안 된다.

또한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바르는 약부터 시작을 하고, 스킨링이나 피지를 억제시키는 각종 레이저 치료를 해 볼 수 있다. 또 여드름이 지속적으로 나는 모공에 절연침을 넣고 통전시켜서 그 부분의 피지를 줄이는 시술도 있다. 여드름 흉터는 원래대로 회복되지는 않기 때문에 흉터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인데, 만약 여드름 흉터가 생기면 레이저 치료를 통해 완화시킬 수 있다. 최근에는 미세박피 레이저를 사용해서 여드름 흉터를 완화시키는 치료를 많이 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피부과 유화정 교수는 “여드름이 생겼을 때 손으로 짜는 경우 이로 인해 이차적으로 세균감염이 생기거나 면포가 밖으로 나오지 않고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버리면 더 큰 염증을 유발해 흉터를 남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설명하며 “여드름이 생기면 손으로 짜지 말고 여드름 클리닉을 찾아 치료를 받는 것이 흉터예방의 지름길이다”고 말했다.

생활 속에서도 약간의 노력으로 여드름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유화정 교수는 “각질제거나 딥클렌징은 1~2주에 한 번만 하는 것이 좋고, 화장품 사용시 비면포성이라는 표시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몸 안에 당을 쉽게 올리는 인스턴트 음식이나 탄수화물 제품의 섭취는 자제하는 것이 여드름발생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피부과 유화정 교수

대한피부과학회 보훈위원
대한의화레이저학회 간행위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원 박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전문분야 레이저, 피부미용, 필러, 보톡스
진료시간 오전(월, 수, 목) 오후(화, 수) * 목 오전 - 레이저클리닉

세계 속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국제수준의 의료진 (5)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는 세계 최고의 의과대학 및 의료기관에서 연구교수, 교환교수, 방문교수, 연구원 등으로 재직한 우수한 의료진들이 직접 진료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은 최고수준의 의료진과 최첨단 의료장비를 바탕으로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활약한 안산병원 의료진을 소개합니다.



김진석 교수 〈순환기내과〉

대한심장학회 부정맥연구회 정회원
대한심폐소생협회 정회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원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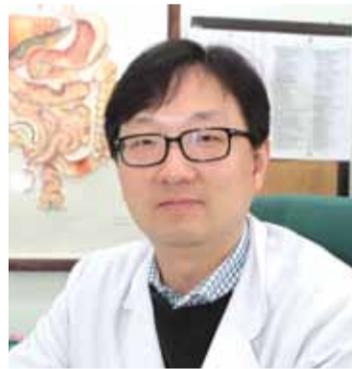


연수기간 2011. 02 ~ 2013. 01
연수내용 심방세동의 치료 및 합병증의 예방
전문분야 부정맥, 고혈압, 심부전증
진료시간 오전(수, 금), 오후(수)



한형준 교수 〈간담체외과〉

한국간담체학회 평생회원
대한내시경복강경학회 평생회원 및 윤리위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원 박사



연수기간 2011. 09 ~ 2012. 02
연수내용 간이식 수술과 신장이식 수술의 임상과정 연수
전문분야 간암, 담도암, 췌장암, 복강경수술, 간이식, 신장이식
진료시간 오전(월), 오후(목)

도약! 연구중심병원

고대 안산병원, 2015 융복합 산학연병 워크숍 개최 연구중심병원 진입위해 추진해온 공동연구 실적 등 공유



졌고, 참석자들은 선제적 바이오마커 발견을 위한 대사체학 연구와 신약개발을 위한 전임상, 임상연구 등에 발표시간에 육박하는 열띤 질의응답과 토론을 펼쳤다.

고대 안산병원 수행연구 발표를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14년 동안 축적된 자료 기반의 안산 코호트조사를 통한 증거 창출 및 융복합 연구개발 상품 생산과 검증(고려대학교 안산병원 호흡기내과 신철 교수) ▲제브라 피쉬 실험을 이용한 독성학 평가 : 배 독성 & 약물 스크리닝(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이비인후과 최준 교수) 등의 연구발표로 선형적이고 실증적인 임상연구에 대한 사례발표와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고려대 안산병원이 2015년 연구중심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힘찬 첫 걸음을 내딛었다.

고려대 안산병원(원장 차상훈)은 1월 29일 중회의실에서 연구교원, 의생명연구센터 연구원, 그리고 고려대 약학대학 등 20여 명의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 '연구중심병원 추진을 위한 2015 융복합 산학연병 워크숍'을 개최하고 개별연구자의 연구분야에 대한 교류 및 그간 진행되어온 융복합 공동연구 성과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대 약학대학 수행연구 발표를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에서는 ▲비만치료를 위한 GPR43을 타겟으로 하는 신약 개발 연구(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광영신 교수) ▲잠재적인 생물표지 발견을 위한 고해상도 대사체학 연구(고려대학교 약학대학 황영자 교수) 등의 강의가 이어

송태진 연구부원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워크숍은 연구자들의 연구 분야 교류를 위한 융복합 연구 증진과 2015 국가연구개발사업 계획서 제출을 위한 컨소시엄의 장 마련을 위한 자리"라며 "오늘의 자리가 수많은 학술교류와 공동연구로 이어져 보건의료산업분야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대 안산병원은 보건의료산업 융복합연구 활성화 및 의료산업화를 위한 공동연구를 위해 고대 약학대학,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들과 지속적인 학술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정책과제 컨소시엄 구성, 연구자별 공동연구 추진 등 실질적 연구협력에 힘쓰고 있다.

언론에 소개된 안산병원

불안정한 수면, '노화 시계' 앞당길 수 있다 잠 자주 깨는 '분절수면' 잤을수록 텔로미어 길이 짧아져...



상태인 사람의 텔로미어 길이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불안정한 수면상태를 나타내는 주기적 호흡 및 분절 수면에서 발생하는 좁은 형태의 극저주파 대역(e-LFCNB)의 활성화가 뚜렷한 경우, 수면의 안정도가 떨어져 불안정을 초래하고, 이는 텔로미어의 길이를 짧아지게 할 수 있는 유의적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밝혀낸 것이다. 특히 중증도 수면무호흡이 동반된 경우에는 고질적으로 계속되는 분절 수면이나, 호흡의 화학적 반사작용에 따른 교감신경계의 심박동수 변이 현상이 수면 무호흡 현상과의 교류를 통해 극저주파 대역이 활성화 될수록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지는 현상이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잠을 자는 동안 자주 깨는 '분절수면' 과 같이 불안정한 수면 상태가 노화를 앞당길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려대 안산병원 수면장애센터·인간 유전체 연구소 신철 교수, 권유미 박사팀은 국내 45-72세 사이의 성인 남녀 381명(남자 138명, 여자 243명)을 대상으로 혈액에서 추출한 텔로미어(telomere)의 길이와 수면 중 발생하는 호흡 및 심박의 관계를 분석해 수면과 텔로미어와의 상관관계를 밝히는데 성공했다.

세포 속에 있는 염색체의 양 끝 부분을 의미하는 텔로미어는 체내의 '노화 시계' 로 불리며 노화와 텔로미어의 길이의 상관관계를 두고 국내외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텔로미어는 유전적 영향 외에도, 활성 산소나 염증 반응 등을 통해서 길이가 짧아질 수 있고, 짧아진 텔로미어는 노화는 물론, 암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과의 상관 사례가 보고되면서, 그 영향성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연구 결과, 불안정한 수면상태를 자주 보이는 사람의 텔로미어 길이가 정상적인 수면

신철 교수는 "불안정한 수면은 노화를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한 달 이상 지속되는 등의 수면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진단 및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며 "보통, 수면 장애는 본인 스스로 그 여부를 인지하고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가족을 비롯한 가까운 지인 등을 통해 그 수면 장애 이력이 의심되거나, 관찰된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 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연구에 참여한 각 대상자들을 혈액에서 추출한 텔로미어를 수면다원 검사를 통해 측정된 무호흡-저호흡 지수(apnea-hypopnea index, AHI)를 정상, 경증도, 중증도 수면무호흡 세 가지로 구분하여 수면 중에 일어나는 숨, 호흡과 심장 박동수간의 동적 관계를 이용한 수면 분석 방법을 통해 대상자별로 형성된 스펙트로그램(spectrogram)과 대조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본 연구결과는 올해 해외저명 학술지인 '수면과 호흡(Sleep and Breathing)' 1월호에 게재되었다. (저자: 권유미, 백인경, Thomas RJ, 신철)



호흡기내과 신철 교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수면장애센터 소장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호흡기내과 과장
미국 하와이대학교 의과대학원 박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학사

전문분야 수면장애(수면무호흡, 코골이, 기면증 등)
진료시간 오후(월, 수) *수면클리닉

건강정보

당신의 폐가 병들어 가고 있다 : 만성 기관지염



만성 기관지염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하나로 가래가 나오는 기침이 1년에 3개월 이상 지속되고 이런 증상이 2년 이상 연속적으로 나타나며, 기도가 서서히 좁아지는 비가역적 기도 폐쇄 현상을 통해 호흡에 어려움을 겪는 질병입니다.

만성 기관지염의 원인으로는 흡연, 대기오염, 직업적 노출, 호흡기 감염 등을 들 수 있고, 병의 경과가 오래

된 경우에는 폐기능의 저하로 호흡곤란을 겪을 수 있으며, 급작스러운 증상의 악화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또한 만성 기관지염은 비가역적 질환으로 완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금연하기, 대기오염이 심한 경우 외출을 삼가고 외출 시 마스크 착용하기, 호흡기 감염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폐렴 및 독감 예방 주사 정기적으로 접종하기 등의 생활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말 |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가정의학과 김도훈 교수



가정의학과 김도훈 교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가정의학과 과장
대한가정의학회 총무위원 및 수석간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원 박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전문분야 건강증진, 만성질환관리, 노인병
진료시간 오전(화, 금) 오후(화, 수) * 매일 1주 토요일 진료(4, 5주 교대진료)

센터 소식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위·수탁 업무 협약 체결

정신보건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이 추진 위해 상호 협력 약속



고려대 안산병원(원장 차상훈)은 안산시 단원보건소(소장 이홍재)과 2월 2일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에서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위·수탁 업무 협약식' 을 체결하고 정신보건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은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차상훈 원장과 안산시 단원보건소 이홍재 소장 등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양 기관은 이번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양질의 정신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협약의 내용은 직접피해자 사례관리, 소아청소년 등 심리지원사업, 간접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지원사업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공동기획·협력 사업을 통해 국가재난상황에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지키는 체계적 시스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차상훈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내에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트라우마센터를 정부와 대학병원이 위·수탁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추진한 사례가 매우 드물다”며 “고대 안산병원은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재난정신의학 분야의 첨병 역할을 다하기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홍재 소장은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들과 고통을 함께한 고대 안산병원이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의 운영을 맡아 보다 전문적인 정신치료가 가능할 것”라고 말하며 “양 기관이 적극 협조하여 정신보건사업분야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는 한창우 센터장(고대 안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를 중심으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 및 안산시민들의 전문적 심리지원과 통합적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상소식

영상의학과 추지영, 이선아 교수, 북미영상의학회 연구상 수상



고려대 안산병원 영상의학과 추지영(왼쪽), 이선아(오른쪽) 교수가 지난해 11월 30일부터 5일간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된 2014 북미영상의학회(RSNA, Radiological Society of North America)에서 연구성과를 인정받아 각각 연구상(the RSNA Trainee Research Prize)을 수상했다.

이번 학회에서 추지영 교수는 기도병변을 위한 디지털토모신테시스: 전산화단층촬영을 기반으로 한 일반촬영술과의 비교분석(Digital tomosynthesis for airway evaluation: Performance comparison with chest radiography with CT as reference), 이선아 교수는 손목 자기공명관절조영술 단독시행과 손목 자기공명관절조영술과 동영상관절술을 함께 시행한 경우의 비교: 삼각섬유연골과 내재인대파열의 진단에서의 유용성(Comparison of wrist MR arthrography alone and wrist MR arthrography plus dynamic cine-arthrography: The usefulness in the diagnosis of TFCC and intrinsic ligament tear)을 주제로 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특히 이번 46명의 수상자 중 한국인 수상자가 4명인 점을 고려했을 때, 고대 안산병원에서 2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는 점은 고대 안산병원의 연구능력을 인정받은 결과라 할 수 있다.

두 교수는 수상소감을 통해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회에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연구와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올해 100주년을 맞이한 북미영상의학회는 전세계 약 700개 이상의 기업들과 5,000여 명의 영상의학 전문의 및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영상의학회다.

흉부외과 이인성 교수 정년퇴임식



남기신 교수님의 업적은 언제나 제자들과 후배들을 지켜주는 등불로 남아 있을 것이며 교수님의 커다란 업적들과 남겨주신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겨 안산병원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려대 안산병원(원장 차상훈)은 2월 23일 대강당에서 흉부외과 이인성 교수의 정년퇴임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정년퇴임을 맞이한 이인성 교수, 차상훈 병원장, 최병민 진료부원장, 김운영 적정진료관리위원장 등 200여명의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는 ▲개식사 ▲이인성 교수 약력 소개(신재승 흉부외과 과장) ▲감사패 전달(차상훈 병원장) ▲꽃다발 증정(전공의 대표 1명, 교직원 대표 1명) ▲병원장 송별사 ▲이인성 교수 감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행사 내내 뜨거운 박수로 이인성 교수의 퇴임을 축하했다. 이인성 교수는 "지난 32년 동안 고대 의료원 가족들의 도움 덕분에 의사와 교육자로서 본분을 다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고대 의료원과 고대 안산병원의 끊임없는 발전을 고대한다"고 말했다. 차상훈 병원장은 송별사에서 "교수님께서 일궈놓으신 바탕 아래 안산병원이 도약 하고 있는 가운데 높은 경륜을 지니신 교수님께서 떠나신다니 큰 힘을 잃는 것 같아 아쉽고 안타깝다"며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서, 부속병원 흉부외과의사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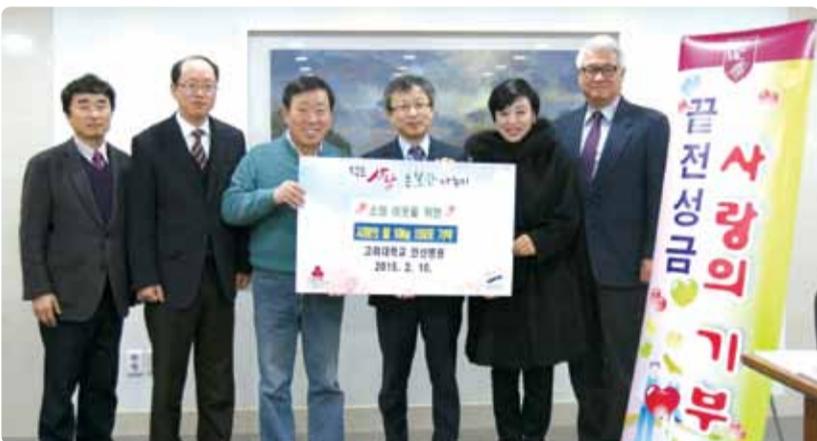
'2014 QI&CI 경진대회' 성료



적 향상' 이 대상을, QI 포스터발표 부문에서는 간호부 외래 '초진환자 증가를 위한 개선방안' 이, 지표 구연발표 부문에서는 신생아실/신생아중환자실에서 발표한 '모유수유 실천율' 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고려대 안산병원(원장 차상훈)은 2월 12일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 고객만족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2014 QI&CI 경진대회' 를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차상훈 원장을 비롯한 240여명의 교직원 및 외부관계자들이 참석해 지난 1년간의 QI&CI 활동을 발표하고 함께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2014년은 '의료기관 재인증' 을 준비하며 '의료의 질' 과 '환자 안전' 에 대한 교직원들의 관심과 인식도가 더욱 높아진 한 해였기 때문에, 이번 경진대회는 어느 때보다 직원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활발한 참여를 보였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적정진료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사전심사를 통해 선정된 QI 부문 11개팀(구연 발표 6개팀, 포스터발표 5팀)과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지표보고회에서 선정된 부문별 상위 1개팀(간호/진료지원/행정/리더십 인터뷰 부문-총 4개팀)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그 결과, QI 구연발표 부문에서는 구급소생위원회의 '원내 심정지 발생 시 대응체계의 질

따뜻한 설 명절 위한 사랑의 쌀 전달



고려대 안산병원(병원장 차상훈)은 2월 10일 안산시청 내 시장실에서 안산병원 교직원들이 6개월 동안 모아온 '끝전성금' 으로 마련된 쌀 150포(10kg)를 안산시에 전달하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끝전성금 사랑의 쌀 전달식' 을 가졌다. 1997년 안산병원 교직원들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시작한 '끝전성금' 은 자신의 급여 및 상여 실지금액의 1천원 미만 금액을 기부하는 나눔 문화로, 지금까지 교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추석과 설 명절을 맞아 안산시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쌀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랑의 쌀은 안산시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가구로 전달할 예정이다. 차상훈 병원장은 "설을 앞두고 소외된 분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를 이끌어가는 고대 안산병원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고려대 안산병원은 앞으로도 끝전성금, 코시안의 집 후원, 지역의료봉사활동 등 지역사회를 밝히기 위한 사회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2015 환우를 위한 행복나눔 신년 음악회



고려대 안산병원(원장 차상훈)은 1월 22일 대강당에서 '환우를 위한 행복나눔 신년 음악회' 를 개최했다. 환우들의 단조로운 투병생활에 활력을 주고 쾌유를 응원하는 것은 물론 교직원들의 문화생활 증진을 위해 개최된 이날 음악회는 고대 안산병원 밴드 동호회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 의 노래와 연주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고대 안산병원 호흡기내과 신철 교수를 중심으로 한 밴드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 의 멤버들은 바쁜 일상에도 시간을 쪼개 환자들과 교직원들을 위한 공연을 준비했다. 음악회는 환자와 보호자, 교직원 등 200여명이 객석을 가득 채운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관객들은 공연 내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노래를 함께 따라 부르며 음악과 호흡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특히 앞으로 투병생활 중인 한 환자가 공연에 참여해 노래를 열창해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차상훈 병원장은 인사말에서 "음악은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소중한 도구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자리를 마련해준 고대 안산병원 밴드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 에게 감사드리며, 관객분들 모두 음악을 감상하며 몸과 마음이 즐거운 음악여행 떠나시길 바란다"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임상연구수주 우수자 포상



고려대 안산병원(원장 차상훈)이 임상연구의 업적이 탁월한 원내 연구자들의 동기 부여와 대형 임상 연구수주 증진을 위한 포상을 실시하며 연구중심병

원을 진입을 향한 발걸음을 이어나갔다. 고대 안산병원은 2월 10일 병원장실에서 차상훈 병원장, 송태진 연구부원장, 차대룡 통합임상시험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상연구수주 우수자 포상'을 실시하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포상 대상자는 총 3명으로 내분비내과 김난희 교수(계약진수 1위), 소아청소년과 김윤경 교수(수주액 신장 1위), 감염내과 최원석 교수(수주연구액 1위)가 선정됐다. 차상훈 병원장은 "여러분을 비롯한 원내 연구자분들의 탁월한 임상연구 업적 덕분에 고대 안산병원이 연구 중심병원이라는 목표에 빠르게 근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원내연구자들의 활발한 연구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격려했다.

에버그린21 환경인증 서비스부문 1위!



고려대 안산병원(원장 차상훈)이 2월 10일 안산시청 대회 의실에서 진행된 '안산시·에버그린21 생태도시 비전 선포식'서 에버그린21 환경인증 서비스부문 1위상을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제종길 안산시장, 에버그린21 신용관 대표이사, 고대 안산병원 송효성 경영관리실장을 비롯한 100여 명이 참석해 에너지 절약 및 환경개

선 실천방안과 생태도시 비전실현을 위한 변화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고대 안산병원은 병원최초 환경인증제 서비스부문 최고등급 획득 기관으로서 평소 의료기관으로서 에너지절약에 앞장서왔으며, 이번 수상으로 에너지절약 모범기관으로 다시금 거듭나게 됐다. 차상훈 원장은 "고대 안산병원 전 직원이 에너지 절약을 위해 노력해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안산시가 시민과 함께하는 생태도시로 발돋움하는데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4 호스피스 총회 성료



고려대 안산병원(원장 차상훈)은 2월 25일 소강당에서 '2014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호스피스회 회장 혈액종양내과

성화정 교수, 가정의학과 김도훈 교수, 이경진 간호부장을 비롯한 교직원, 봉사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호스피스회에서 모금한 치료지원성금을 3명의 호스피스환자에게 전달하며 따뜻한 정을 나눴다. 또한 2014년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감사패를 전달하는 것은 물론, 현재 안산병원 호스피스회의 현황 등을 짚어보는 등 지난 한 해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뜻 깊은 자리를 가졌다. 한편, 고대 안산병원 호스피스회는 창립 이래 여러 자원봉사자 및 회원들의 노력과 협조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호스피스 자원봉사의 정신을 꾸준히 전파해 왔다.

5기 친절리더 양성 과정 성료



고려대 안산병원(원장 차상훈)이 2월 12, 13일 양일에 걸쳐 5기 친절리더 양성 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친절리더는 직원 개개인의 CS

능력 향상을 통한 고객만족서비스 증진과 친절문화 확립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5기 친절리더 양성과정에는 전 부서에 걸쳐 선발된 38명과, 1기 CS강사 5명도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소강당에서 진행되었으며, 이틀 동안 ▲서비스 리더십 ▲스팟&친절조회 ▲나는 누구일까?(DISC) ▲성인학습의 원리 및 핵심교수법 ▲이미지 메이킹 ▲우리병원 주인공 찾기(MOT, 모니터링) ▲4기 친절리더 활동보고 및 임명장 수여식 등 내원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 제공과 병원 내 친절문화가 확산을 위한 다양한 교육이 진행됐다. 차상훈 병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러분이 적극적인 자세로 교육에 임하고 합심하여 친절문화를 주도한다면, 고대 안산병원이 친절병원으로 도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라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임상간호연구논문 중간발표회 성료



고려대 안산병원 간호부(부장 이경진)는 1월 23일 중회의실에서 임상간호연구 논문 중간발표회를 가졌다. 이번 임상간호연구는 ▲ '멘토링이 응급실 간

호사의 감정노동에 미치는 영향' (응급의학과) ▲ '복부 마사지가 척추수술을 받은 환자의 변비 완화에 미치는 효과' (71병동) ▲ '미숙아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지식과 교육에 관한 연구' (신생아중환자실) ▲ '착유중재프로그램이 미숙아를 출산한 제왕절개 산모의 유방 불편감과 모유수유에 미치는 효과' (51병동) ▲ '내부마케팅 및 서비스 경영이 종합병원 외래간호인력의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외래팀) 등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2015년 간호학술대회를 통하여 발표될 예정이다.

2015년 간호관리자 워크숍 개최



고려대 안산병원 간호부(간호부장 이경진)는 지난 2015년 2월 3일 간호관리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부로

나아가기 위한 사업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서, 간호부 중장기 사업계획을 토대로 팀별 사업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안산병원 개원 30주년을 맞아 다가오는 서해안 시대의 거점의료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한 새로운 다짐을 하는 자리가 되었다. 한편, 이경진 간호부장은 "뜨거운 열정으로 간호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사업계획을 제안 해 주신 간호관리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덕우 교수팀, 국내최초 실시간 림프관조영장비 개발

정확하고 빠른 치료로 림프부종 수술에 새로운 지평 열어



된다. 지방흡입술은 수술 후 즉시 팔다리의 크기가 줄지만 지속적인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방법은 근본적으로 림프부종의 원인을 치료하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에 림프관-정맥 문합술은 림프부종의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 방법으로서, 림프관과 정맥을 서로 연결시켜서 정체된 림프액이 정맥을 통해 원활히 빠져 나올 수 있게 한다. 이론적으로 가장 좋은 수술이지만 림프관은 투명하면서 크기가 1mm 이하로 매우 작으며, 림프관의 위치를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 림프관-정맥 문합술은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수술이었다.

고려대 안산병원 성형외과 김덕우 교수팀이 국내최초로 실시간 림프관조영장비를 개발하여 림프부종 수술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림프관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림프관조영장비는 미국과 일본 등에서 개발되었으나 국내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아 국내 성형외과 의사들의 세계적인 실력에도 불구하고 림프부종의 근본적 치료법인 림프관-정맥 문합수술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상황에서 고대 안산병원 김덕우 교수팀의 실시간 림프관조영장비 개발은 림프부종 수술의 혁신적인 방법으로 떠올랐다.

▲ 림프부종 근본 치료법 림프관-정맥 문합술, 림프관 위치 확인에 어려움 겪어...

림프부종은 림프관이 막히면서 조직 속의 림프액이 혈관으로 빠져나가지 못하여 팔 또는 다리가 붓는 증상이다. 림프부종이 생기면 통증, 이상감각 등의 증상과 팔다리가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심하면 반복적으로 감염이 발생한다.

림프부종이 발생하면 림프액의 배출을 돕는 물리치료를 꾸준히 시행해야 하는데 이러한 보존적 치료를 1년 이상 시행해도 만족할 만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수술적 치료는 두 종류인데 팔다리에 축적된 비대해진 지방조직을 제거하는 지방흡입술과, 순환되지 않는 림프액을 혈관을 통해 배출시키는 림프관-정맥 문합술로 크게 구분

▲ 실시간 림프관조영장비개발로 림프부종 치료에 새로운 해법 제시

그러나 이번 김덕우 교수팀의 개발로 림프관-정맥 문합술 시행 전 림프관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림프관-정맥 문합술이 가능해졌다. 또한 장비의 성능도 우수하여 1cc 정도의 약물(indocyanine green)을 주사하는 것만으로 팔 또는 다리의 모든 림프관이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에 피부절개를 하여 불필요한 피부 절개를 피할 수 있다. 김덕우 교수는 “림프관-정맥 문합술이 탁월한 효과로 최근 성형외과 영역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이번 실시간 림프관조영장비개발을 통해 림프부종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환자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형외과 김덕우 교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성형외과 과장
국제성형외과학회 정회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원 박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학사

전문분야 미세수술, 유방재건, 악안면재건, 눈성형, 귀성형
진료시간 오전(월, 목) 오후(목) *매월 3주 토요일 진료

2015년 乙未의 해,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개원 30주년!



지난 30년간 지역주민과 함께 했듯이,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첨단의료를 선도하는 서해안 시대의 중심병원